

2011년 아산상을 수상한 글로벌케어를 만나 현재의 모습과 활동을 소개합니다.

세계의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한 29년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글로벌케어는 국내 최초 국제보건의료 NGO로 29년간 활동해왔다. 사진은 박용준 글로벌케어 이사장(가운데)과 글로벌케어 직원들.

2020년 2월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며칠 만에 환자가 폭증하며 정부와 의료기관 모두 경험 부족으로 우왕좌왕했다. 마침 병원 이전으로 비어 있었던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을 활용해 코로나19 환자를 격리하기로 했지만, 이미 중환자실의 의료기기를 이전한 상태여서 치료는 불가능했다. 행정절차 대로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최소 3~4개월이 걸렸다. 그때 글로벌케어가 전면으로 나섰다.

박용준 글로벌케어 이사장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당장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득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내고, 대한중환자의학회의 협조를 구해 대구로 내려갈 의료진을 수배했다. 물류가 마비되어 수입이 불가능했던 인공호흡기를 구하기 위해 국내 의료기기 회사를 샅샅이 뒤져 전시용으로 사용하던 인공호흡기까지 다 모았다. 순

식간에 대구동산병원 내에 20개 병상의 중환자실이 구축됐고, 전국 의과대학의 중환자실 전문 교수들이 차례로 대구에 내려와 환자를 치료했다.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모이자 치열한 논의를 벌이며 현장에서 임상 지침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현장에서 다듬어진 임상 경험은 코로나19 중환자실과 치료 표준이 되었고,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토대가 됐다. 공공행정이 미처 닿지 못하는 공백을 NGO 특유의 기동성으로 글로벌케어가 신속하게 대처한 것이다.

소외된 나라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다

1997년 국내 최초의 국제보건의료 NGO로 출발한 글로벌케어는 ‘모두가 건강한 세상’을 목표로 지난 29년간 소외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과 재해 지역 긴급구호활동을 펼쳐왔다. 인도 구자라트 지진, 터키 지진,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18개국의 재난 현장에 의료팀을 파견하고 전 세계 15개국에서 보건의료사업을 진행하며 2011년에는 아산상을 수상했다. 박용준 이사장은 “아산상을 받은 것은 글로벌케어에 아주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한다. “아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지지 덕분에 새로운 도전에 나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시상식에서 NGO로서 국제 사회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는데, 15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약속보다 훨씬 더 성장한 것 같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글로벌케어는 아산상 수상 이후 국제 보건 학계와 현장을 아우르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탄탄히 구축했다. 국제보건분야 석학을 영입해 국제보건연구소를 출범시켰고, 이를 통해 전 세계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국제보건분야 인재 양성에도 힘써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NGO로 자리매김했다.

최첨단 모바일 헬스로 아프리카 결핵 퇴치

글로벌케어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핵심 분야는 보건의료에 IT를 결합한 모로코 결핵 역량강화 사업이다. 모로코는 의료환경이 열악해 결핵 발병률이 높은 지역이다. 결핵은 약을 정확히 복용하면 치료 효과가 높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약을 잘 복용하지 않아 이를 관리하는 방법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됐다.

그동안은 환자가 매일 보건소를 방문해 의료진이 보는 앞에서 약을 먹는 방식으로 관리했으나, 글로벌케어는 IT기술을 결합해 관리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 스마트폰과 약상자를 연결해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고, 약상자를 열면 신호가 바로 보건센터로 전송되어 복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호가 오지 않으면 보건요원을 보내 집중 관리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환자들의 복용 순응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되면서 결핵 치료율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 이 성공을 바탕으로 현재는 이웃나라 모리타니에서도 사업을 진행해 수많은 결핵 환자들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있다.



서아프리카 모리타니에서 글로벌케어 관계자가 결핵환자를 교육하고 있다.

박용준 이사장은 “최근에는 유엔 산하 아동구호기관인 유니세프, 한국 코이카와 3자 협력을 맺고 모로코에서 국제 공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며 “우리 NGO가 세계적인 국제기구와 대등한 파트너로 손잡고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은 한국 NGO 역사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쾌거”라고 말한다.

AI 시대, NGO의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

창립 30주년을 앞둔 글로벌케어는 모바일을 넘어 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가 결합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AI를 활용해 기후변화와 재난 데이터를 분석하면 식량 부족이나 전염병이 발생할 지역을 미리 예측해서 구호물자와 의약품을 미리 배치하는 국제공조 시스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AI가 고도화되면 전문가가 설 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죠. 저는 고도의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이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분야가 NGO라고 생각해요. 국가가 추진하는 규모가 큰 사업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NGO의 역할이 아닐까요.” 박용준 이사장은 “글로벌케어가 국제보건의료에 관심을 갖는 젊은 의료진을 돕는 든든한 멘토이자 플랫폼이 되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 **글 편집부**